

인 사 글

만물이 겨울잠을 떨치고 무량한 인연 공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의 절기입니다.

2년전 이맘때, 설레임과 걱정을 안고 이 자리를 찾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선명합니다. 우리 종단이 불교산업과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이라는 내실있는 화두를 직접 챙겨보자고 나선 첫 걸음이었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. 하지만 그 씨앗이 뿌려져 오늘 이렇게 서울시와 공동으로 ‘서울국제불교박람회’라는 한층 발전된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.

한국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치·경제·문화·예술에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. 건축은 물론 조각과 공예, 그리고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의 삶과 문화의 가치를 담아내고, 일상생활과 접목한 산업의 꽃을 피워내기도 하였습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산업의 원천인 것입니다.

‘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’는 한국 전통문화의 산실인 불교문화에 담긴 산업적 진면목을 조명하고, 미래를 조망하는 뜻 깊은 자리라 하겠습니다. 특히 올해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, 일본, 대만, 독일, 스리랑카, 부탄 등 이웃나라가 함께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성장하였습니다. 산업 활성화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내고, 관련 산업의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.

또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교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‘붓다아트페스티벌’이 함께하고 있기에, 오늘 이 자리가 불교계 최대 예술축제로 거듭나고 불교미술을 선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성취이기를 바랍니다.

나아가 ‘서울국제불교박람회’와 ‘붓다아트페스티벌’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현대인의 삶과 함께하며, 전통 문화가 숨쉬는 산업 발전은 물론 찬란한 불교문화가 국제적으로도 빛날 수 있도록 하는 큰 마당이기를 바랍니다.

뜻 깊은 결실을 위해 진력해오신 불교신문사와 불광출판사,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2559(2015)년 3월 12일

서울국제불교박람회 대회장 /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